

보육·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 보고

- 사회정책수석실(사회정책), '05.4.14(목) -

◇ '04. 6. 11 제1차 육아지원정책방안 보고시 대통령님의 보육·유아 교육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여성부 주관으로 국책연구기관 (보건사회연구원, 여성개발원 등)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 바, 그 주요결과와 정책적 의미를 보고드립니다

【주요내용 요약】

- ※ 조사개요: 전국 1만2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조사,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·심층조사를 통해 시설현황, 표준보육·교육비용 및 적정부담 등에 관해조사('04. 9~'05. 2)
 - 영아는 가정내 양육을 선호하고, 유아는 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이 필요
 - 우선 확충되어야 할 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, 직장보육시설, 국공립유치원으로 나타났으며, 방과후, 시간제, 야간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
 - 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
 -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부모 부담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용하는 시설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필요
- ⇒ 여성부 장관은 미래위원회와 함께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제 2차 육아지원정책방안을 마련하여 5월초 국정과제회의에 보고예정

1. 서비스 이용 실태

- 육아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출산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남.
 - 아동을 가진 어머니의 38.4%가 결혼 후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고, 미 취업모 중 23%는 “일을 하고 싶어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”고 응답

- 아동연령별로 이용하는 주된 양육지원서비스가 다름. [참고자료 2]
 - 영아는 기관 이용률이 낮고 가족·친척 등 혈연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, 혈연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53.7%가 “심리적 부담”을 느낀다고 응답
 - ※ 영아를 혈연이 양육하는 비율은 0세 19.6%, 1세 22.8%, 2세 25.3%임.
 - 유아는 보육시설(38.9%), 유치원(27.2%), 반일제 이상 학원(13.4%)으로 나타났으며,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45.7%가 “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아서”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
 - 초등학생은 방과후에 학원(69%)에 많이 다니고, 초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이용이 9.4%에 불과 [참고자료3]
 - ※저소득 가구(100만원 미만)의 아동은 10.6%가 부모없이 혼자 보냄

— <정책적 함의 > —

- 아동연령별로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필요
 - 영아는 가정보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대책 필요
(소규모 가정보육 및 육아휴직 활성화, 근로자보육수당 지급 등)
 -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가구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전담보육시설 확충 필요

2. 보육 수요 등

■ 보육수요 관련

- 시설 미이용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아동은 40만명(영아 25만명, 유아 15만명)이고, 유치원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아동(유아)은 38만명임.
- 우선 확충되어야 할 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(45.4%), 직장보육시설(22.9%), 국공립 유치원(17.5%) 등으로 응답하고, 향후 이용의사가 있는 57%가 국공립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하였음.

■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

-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요구가 가장 높고(63.4%), 야간보육(41.3%), 24시간 보육(20.6%), 휴일보육(24.7%)순임.
※ 이용횟수는 시간제 보육의 경우 주 1-2회가 28%, 월 1-2회가 16%임

— <정책적 함의 > —

- 추가 수요에 따른 시설 확충 및 다양한 보육기능 활성화
 - 확충되는 시설중 일정 부분을 국공립으로 하고, 보육비용 현실화로 우수 민간시설 진입을 유도
 - 시간제, 야간 보육 등은 국공립시설을 지정하여 활성화

3. 서비스 비용

- 아동 1인당 보육시설,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월 평균 17만원으로 조사대상자의 가구소득 대비 8.3%임.
 - 기관이용아동 보호자 중 58.1%가 비용에 부담을 느끼며, 미이용 사유의 15%가 비용부담 때문임. [참고자료 4]

- 가구소득 대비 비용 비율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.8%, 150~199만원은 9.3%, 300~349만원은 7.5%, 500만원 이상은 5.7%로 역진적임.
- “더 좋은 보육을 제공한다면 비용을 더 낼 의사가 있다”는 비율이 29%이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추가부담의사는 정비례함.
- 시설 유형별 정부 재정지원이 상이하여 부모 양육비 부담에 차별 초래
 - 월 평균 부모부담 비용은 국공립유치원 86천원, 국공립어린이집 151천원, 민간어린이집 175천원, 사립유치원 204천원
- 걱정수준의 보육·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은 현 보육비용보다 높게 나타남.
 - 특히 만 2세이하 영아는 교사 1인당 아동수가 적어 유아에 비해 표준비용이 높게 나타남
 -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은 정부가 상당부분 보조하여 표준보육·교육비용과 현 보육·교육비용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민간(사립)시설의 경우에는 양 비용 간 차이가 큼.

— <정책적 함의 > —

- 표준보육·교육비용을 감안하여 정부재정지원 확대 필요
 - 다자녀 가구, 취업모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검토 필요
 -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부모 부담의 형평성 제고 필요
 - 부모부담, 정부재정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연도별 재정지원 목표를 설정

4. 서비스 질적 수준

▣ 보육시설 환경 및 설비 수준 열악

- 보육시설의 17.4%가 상가에 설치되어 있고, 전·월세 등 임대시설 비율이 42.3%임.
※ 유치원은 상가 설치 3.2%, 임대시설 9.7%로 자가비율이 높음.
- 2층 이상 설치된 시설이 21.5%에 달하고, 이 중 대피시설이 없는 곳이 38%에 달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▣ 열악한 처우 수준으로 전문성 있는 교사 확보 어려움.

- 보육교사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이상이고, 급여는 80~100만원 미만 27.7%, 100~119만원 22.7%, 79만원 이하 25.7%임.
- 보육교사의 72.2%가 현 보육시설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며 특히 1년 미만도 32.2%이고 “대체교사가 없어서”(36.0%) 교사의 26.1%가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음.

▣ 보육내용 작성 시 표준화된 보육과정이 없음

- 보육프로그램 작성 시 주로 참고하는 자료는 영유아 보육잡지(44.2%)이고, 보육관련연구기관 프로그램(26.2%) 등이며, 특별한 계획 없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
- 쓰기·읽기, 계산하기를 강조하는 학습지를 이용하는 보육시설이 44.9%이었으며, 부모들도 아동이 쓰기·읽기교육을 받는 것을 선호함(48.7%)

— <정책적 함의 > —

▣ 시설 환경 및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

- 환경 및 시설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과 엄격한 지도감독을 강화
- 보육비용 현실화를 통해 교사 처우 개선,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강구
-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보육과정·보육프로그램을 연구·보급

⇒ 여성부 장관은 미래위원회와 함께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육아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 2차 육아지원정책방안을 마련하여 5월 초 국정과제회의에 보고 예정